

안락사와 인간의 자기결정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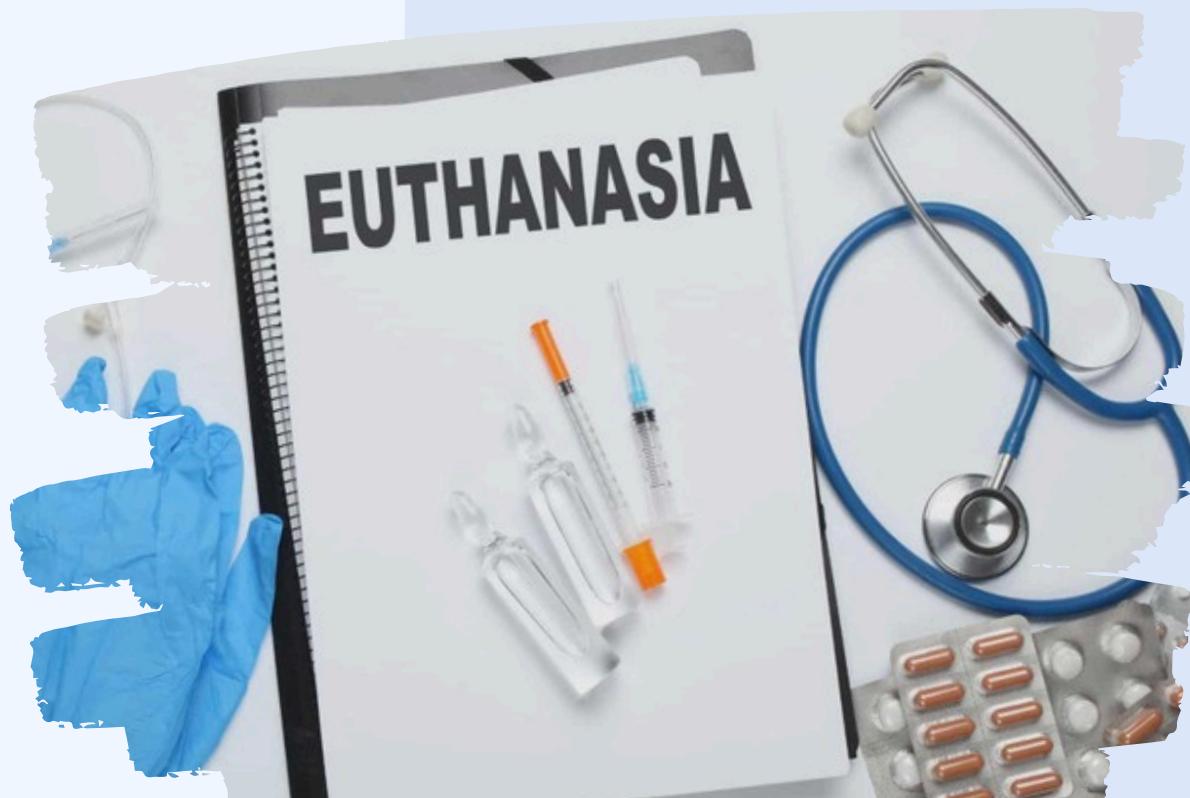


국제통상학 2022706501 응웬빈프엉
미디어커뮤니케이션 2025323515 응웬쭝푹
미디어커뮤니케이션 2025323509 응웬탄토안

인간은 자신의 죽음을 선택할 권리가 있는가?

21세기

“끝없는 고통 속에서도 살아야 하는가, 아니면 스스로 생
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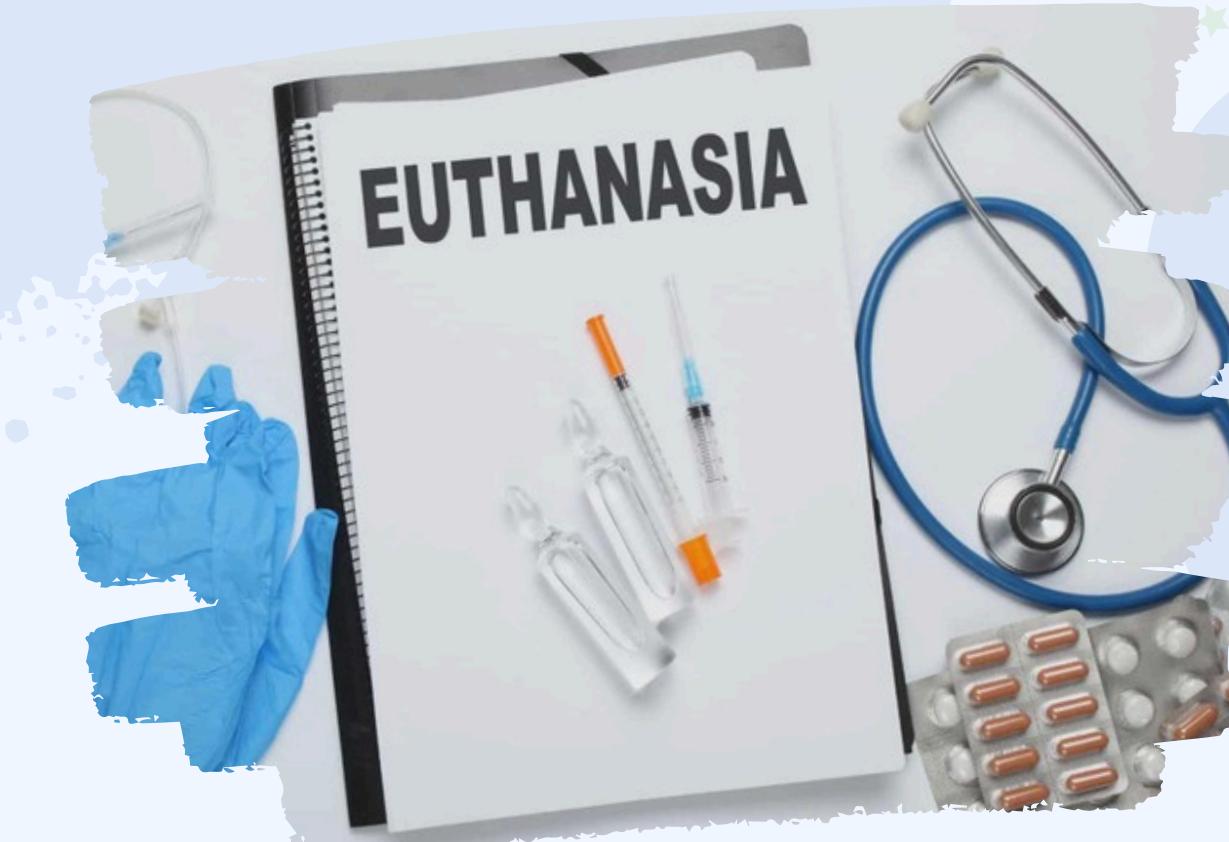
존엄성·윤리·신앙이



1. 안락사의 개념과 유형

1.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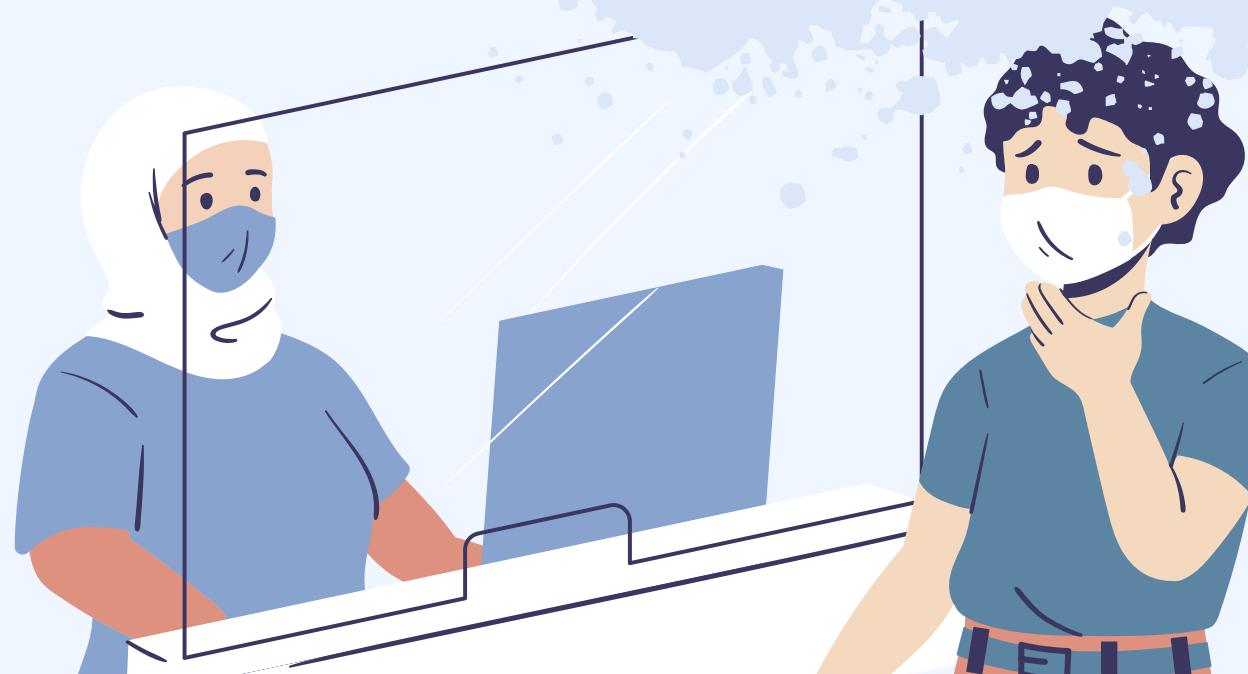
- 어원: AUTHANASIA 그리스어 eu(좋은) + thanatos(죽음)
→ “좋은 죽음”
- 의미: 회복 불가능한 환자의 고통을 덜기 위해 생명을 단축하거나 연명치료 중단
- 목적: 고통 완화, 인간의 존엄성 유지



2. 안락사의 개념과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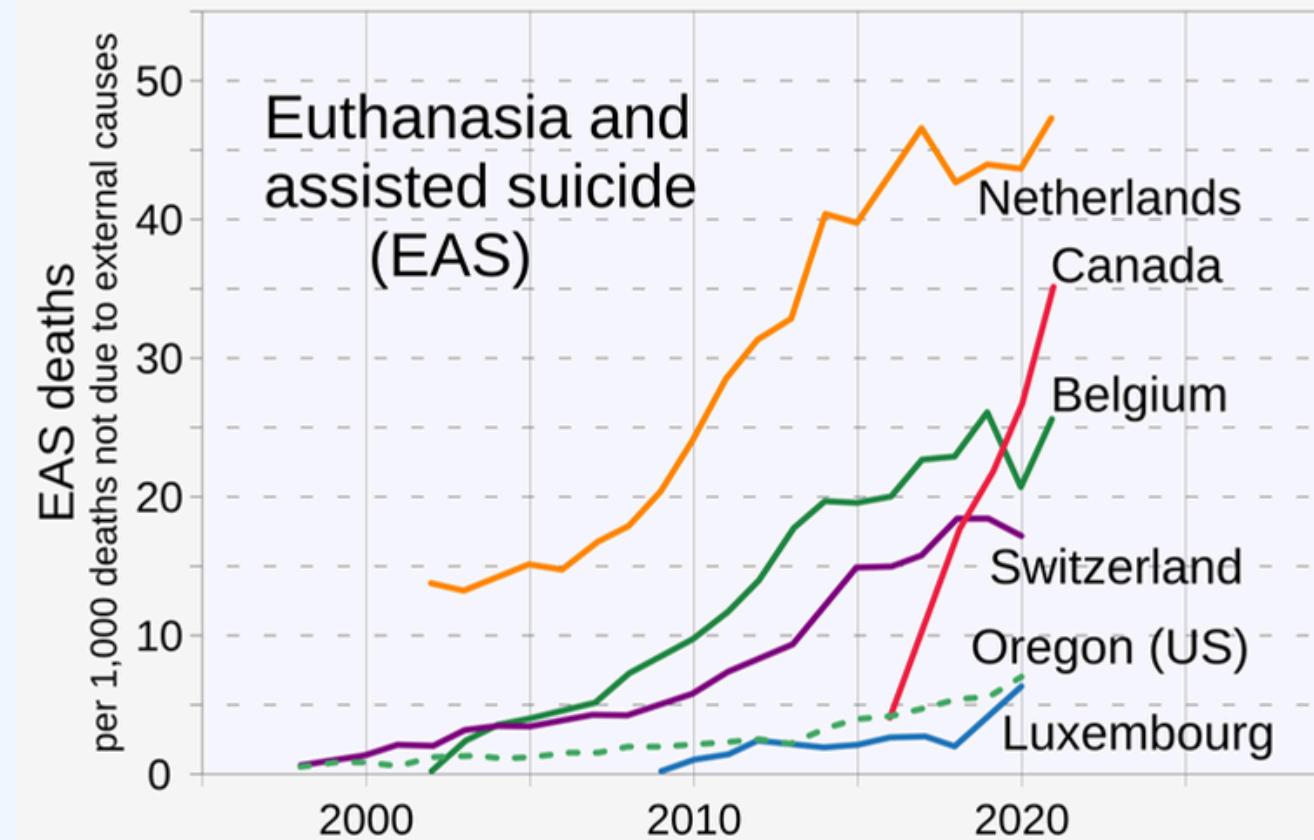
2. 유형

- 1) 행위의 적극성에 따른 구분
 - 적극적 안락사 (Active): 의사가 직접 약물 투여 → 생명 단축
 - 소극적 안락사 (Passive): 연명치료 중단, 생명유지장치 제거
-
- 2) 환자의 의사에 따른 구분
 - 자발적 안락사: 환자 스스로 죽음을 선택
 - 비자발적 안락사: 환자가 의사 표현 불가 → 가족·의사 결정



3. 세계 안락사 현황

현재 약 30개국이 합법화



대표국가: 네덜란드, 벨기에, 캐나다, 스위스, 뉴질랜드

주요국별 안락사 허용 여부		
네덜란드	허용	
벨기에	허용	
룩셈부르크	허용	
스위스	허용	
태국	허용	
프랑스	허용 추진 중	허용 법안, 하원 통과
이탈리아	제한적 허용	일부 판례에서 용인
일본	제한적 허용	일부 판례에서 용인
영국	불허	사실상 묵인
미국	불허	오리건주만 허용



4. 종교별 안락사에 대한 의견

4.1 기독교 - 가톨릭

생명의 신성함 (Sanctity of Life)

- → 인간의 생명은 신의 선물이며, 인간은 그 생명의 주인이 아니라 관리자(청지기)



- 적극적 안락사
- 가톨릭 교리서: 어떤 이유로도 생명을 임의로 종료할 수 없음

- 소극적 안락사
- 치료가 환자에게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부담일 경우,
 - ‘자연스러운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허용 가능, “고통의 연장을 거부하는 행위”

4. 종교별 안락사에 대한 의견

4.2 불교

- 불살생 계율로 적극적 안락사
- 자비의 해석으로 소극적 안락사 가능성 있음
- 중도적 태도로 고통의 집착을 내려놓는 것을 중시

- 불교의 기본 계율: 불살생→생명을 해치지 말라.



4. 종교별 안락사에 대한 의견

4.3 유교

- 유교의 핵심 덕목: 효(孝)---인(仁)
- 몸을 해치는 안락사 = 부모님께 불효(불경).



4.4 이슬람교

- 생명은 알라(Allah)의 것이며, 오직 신만이 생명을 주고 거두는 권한이 있음.



4.5 고대 그리스 철학

- 죽음을 절대적 악으로 보지 않음,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봄. 이성적인 판단에 따른 결정이며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인간의 품위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 스토아 철학은 안락사를 받아들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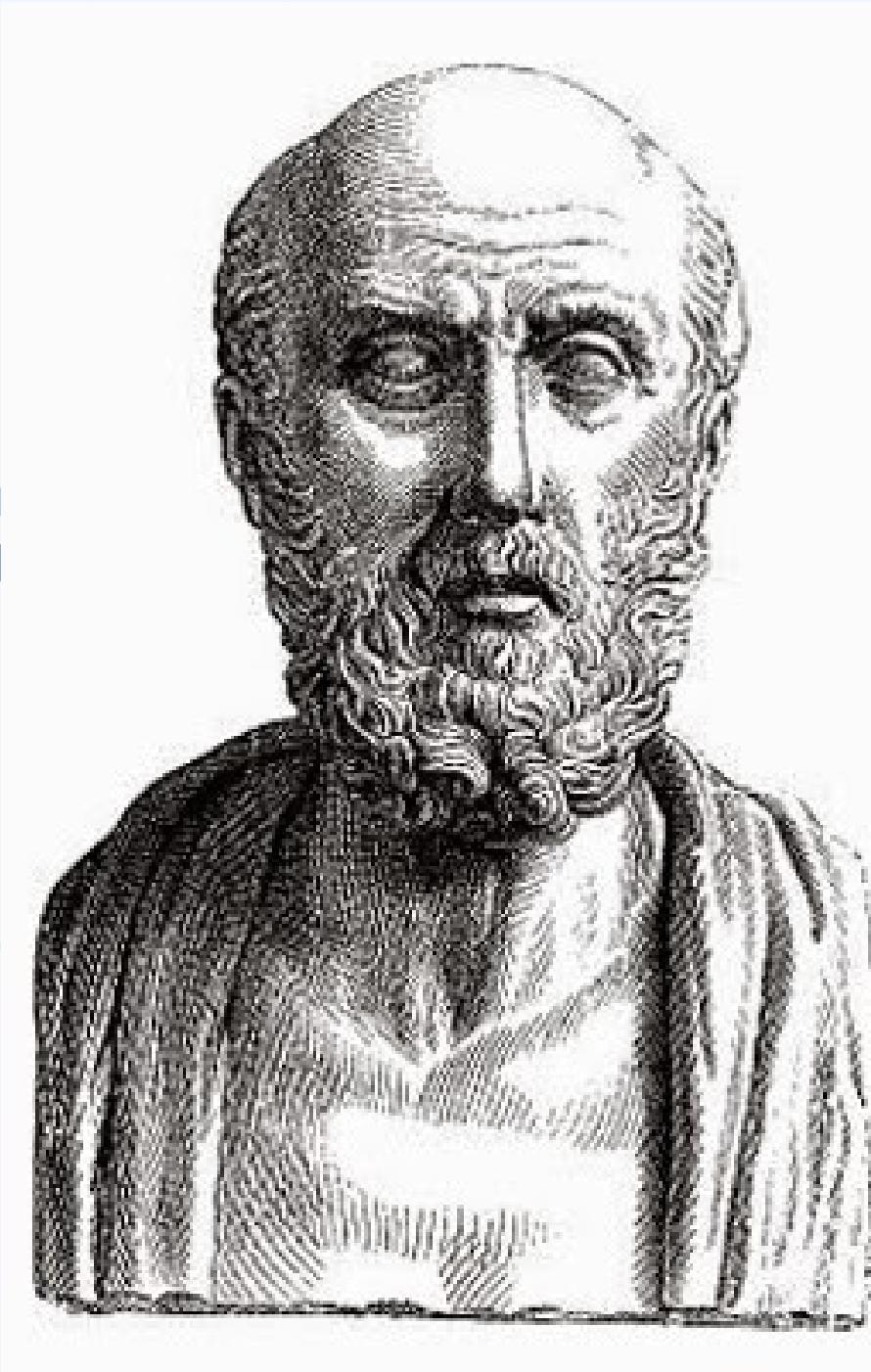


5. 안락사 찬성 논리: 자기결정권과 인간의 존엄성



- 1) 자기결정권의 존중: 인간은 자신의 몸과 삶에 대해 스스로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 2) 존엄한 죽음: 무의미한 연명치료로 품위를 잃는 것보다, 죽음을 선택하는 것은 존엄을 회복하고 삶을 스스로 완성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 3) 고통에서 벗어나고 자비의 선택: 고통 속에서 인간답게 산다. '죽음의 도피'가 아니라 '고통에서의 해방'
- 4) 가족과 사회의 부담 완화: 모든 부담 풀고, 남은 구성원의 삶의 질 보호

6. 안락사 반대 논리: 생명의 신성함과 사회적 위험



1) 생명의 신성함과 불가침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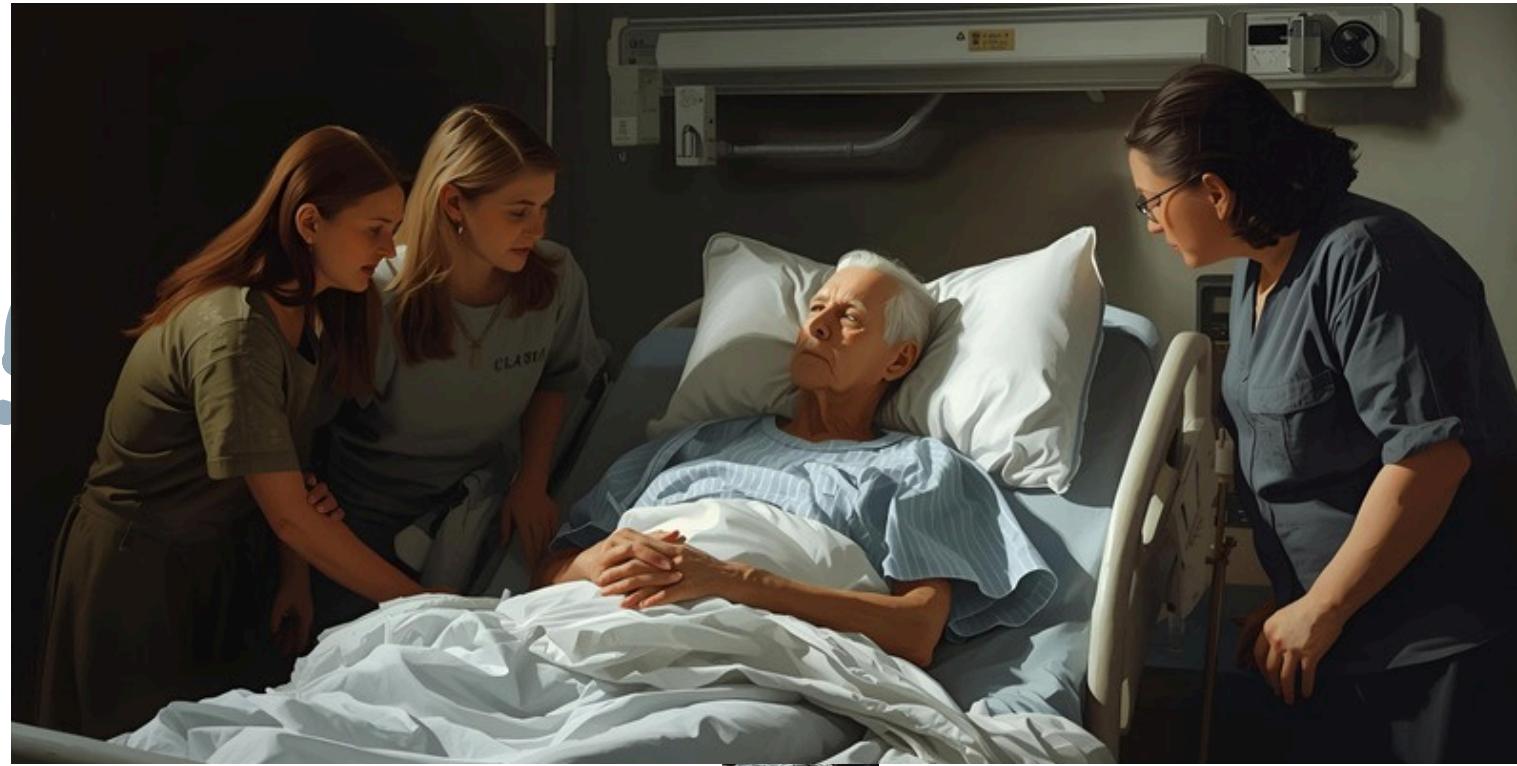
2) 사회적 압력과 취약계층의 위험
(Slippery Slope)

3) 생명 가치의 상대화 한 번 '죽을 권리'가 인정되면, 인간 생명의 가치는 조건부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4) 의사의 역할에 대한 윤리적 혼란

7. 안락사 논쟁의 핵심 원인

개인의 자기결정권: 인간은 이성적 존재로서 자신의 삶과 죽음을 스스로 선택할 자유가 있으며, 이는 고통 속에서도 삶을 주체적으로 결정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다.



생명 존중: 모든 생명이 귀하다는 도덕적 원칙 아래, 사회는 개인의 고통을 줄이면서도 생명의 가치를 지키는 균형을 찾아야 하며, 두 개념은 조화를 이루어어야 한다

8. 해결방안과 사회적 과제

8.1 법적 및 사회적 합의 기반 마련

- 안락사에 대해 환자의 자기결정권, 생명 존엄성, 고통 경감 등 다양한 가치를 고려한 법적 기준과 지침을 마련하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여 균형 있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

8.2 의료 윤리 강화 및 시스템 구축

의료진의 윤리 교육 강화와 환자 의사 존중 시스템 구축을 통해 윤리적 판단 능력을 높이고, 다양한 안락사 형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며, 의학 발전을 통해 안락사 필요성을 줄여야 한다.

8.3 개인의 즉면

안락사 상황에서는 심리적·영적 안정이 중요하며, 죽음을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고통과 집착을 줄이고 정신적 평안을 돋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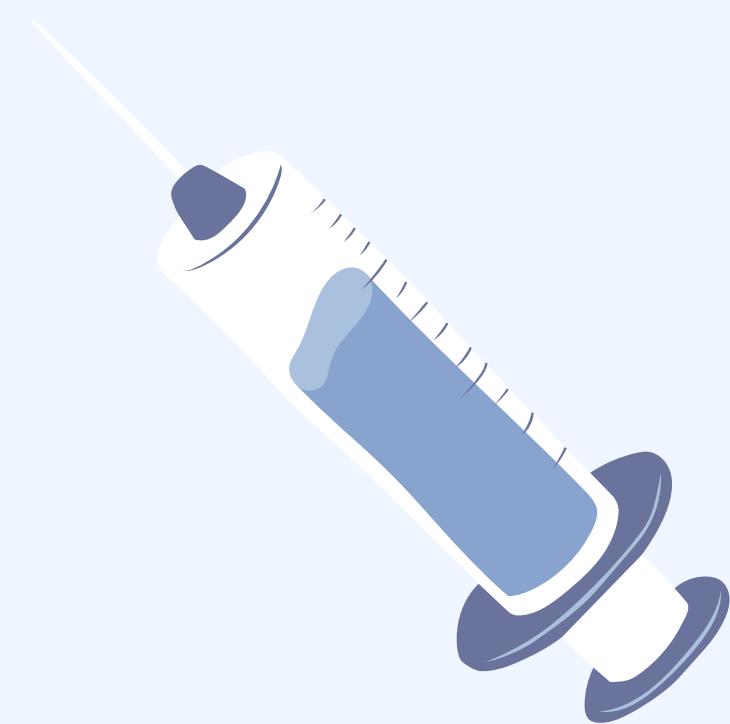




9. 결론: 생명과 자유의 균형을 향하기

- 안락사는 죽음이 아닌 “삶의 존엄”에 대한 논의이다
- 자기결정권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남용되어선 안 된다.
- 죽을 자유보다 먼저 품위 있게 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사회의 윤리적 성숙이 안락사 논의의 핵심이다.



Thank you

참고 눈문 링크

<https://www-kci-go-kr.libproxy.kw.ac.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931474>

<https://www-kci-go-kr.libproxy.kw.ac.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914277>

<https://www-kci-go-kr.libproxy.kw.ac.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931472>

<https://www-kci-go-kr.libproxy.kw.ac.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177346>

참고 자료

<https://consultativebodies.health.belgium.be/en/documents/press-release-fccee-euthanasia-figures-2023>

<https://www.swissinfo.ch/eng/life-aging/swiss-assisted-suicides-rose-11-in-2023/49198616>

<https://www.canada.ca/en/health-canada/services/publications/health-system-services/annual-report-medical-assistance-dying-2023.html>

<https://www.christianpost.com/news/nearly-10k-in-netherlands-euthanized-amid-10-increase-in-2024.html>